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세종에 국민이 나다

보도시점 2024. 10. 21.(월) 06:00 < 10.21.(월) 석간 > 배포 2023. 10. 18.(금)

# 오스트리아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

- 통상교섭본부장,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 면담
- 교역·투자, 산업기술, 수소 등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마틴 코허(Martin Kocher)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10.21.(월) 세종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, 양국 간 교역·투자, 산업 협력, 한-유럽연합(EU)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오스트리아는 우리의 유럽연합(EU) 내 12위 교역국(29.4억불, '23년)이며, 투자 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,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.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에 강국으로 첨단제조업, 디지털,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확대가 기대된다.

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(EUREKA) 등 다자간 연구개발(R&D)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,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하며 향후에도 수소,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,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아가자고 하였다.

또한, 정 본부장은 수소에너지는 산업,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,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 하였다.

끝으로 정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,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, 배터리 법안 등 유럽연합(EU)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,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

| 담당 부서 | 통상정책국<br>구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상헌 | (044-203-5660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행정전문관 | 김진석 | (044-203-5665) |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